‘창업묻당’ 소식지 12호 Q&A

㈜일하(XR과 드론을 결합한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 제작) 박명선 대표 (2)

Q>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편이야?

숲을 좋아해서 주말에 산이나 공원 산책도 많이 하고, 쉬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그런 것들을 실감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지.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도 영감을 얻는 창구 중에 하나야.

Q> 현재 이 가상 드론 시뮬레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은 뭐야?

우리는 드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할 거야! ‘드론 레인저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변신하는 히어로 캐릭터야. ‘드론 레인저스’ 개발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확장할 계획이야.
오프라인에서는 순천 내 관광안내소나 전시관, 로컬 카페 등에 소개해서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어.

Q> 원래 순천에서 살았어?

아니. 난 대전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았는데,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어. 30대에 처음 가본 국내 여행이 담양이었는데 그러면서 순천을 같이 방문하게 됐어. 그때 순천이 주는 편안함과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려서 해마다 방문하다가 결국은 이사 오게 됐지.

Q>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가상 드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어. ‘순천’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

순천만국가정원은 엄청 넓은데 드론으로 촬영할 수 없는 거 알아?
순천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정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그 풍경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이건 정말 드론으로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의 그 아름다움을 미리 볼 수 있고, 비행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순천에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사라지지 않기를, 그래서 ‘순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바라!

Q> <(주)일하>만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해?

<㈜일하>는 항상 일하고 있는 기업이야. 트랜드에 민감하지!
기술 트랜드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AI는 적은 인원 대비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지.
그리고 <㈜일하>는 항상 고민하고 움직이는 실행력 있는 기업이라는 거야.
우린 새로운 설렘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

Q> 순천시 창업연당은 어떻게 입주하게 됐어? 입주해 보니 어때?

순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사를 준비할 때 사무실을 엄청나게 알아봤어. 집에서만 하면 아무래도 작업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든.
문제는 예산인데... 그러다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걸 봤어. 순천만국가정원 근처이기도 했고 드론 비행 테스트하기에 최적이어서 몇 개월을 기다려서 신청하고 입주하게 됐지.
순천 주소지가 아닐 때라서 바로 입주 못 할 때 어찌나 안타까웠던지!
공유오피스라서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이게 웬걸? 막상 입주해 보니 너무 쾌적한 환경에, 사무 장비 걱정도 없고, 사물함 제공에, 보안도 잘되고 사업 공간으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구! 이런 멋진 곳을 마련해준 순천시에 너무 감사해!

Q> 창업하기 전과 후에 생긴 변화가 있어? 사업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책임이 생겼다는 것. 대표를 맡았으니까 내 직원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내가 애지중지 만들어낸 자식 같은 콘텐츠들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덮어버릴 수는 없잖아?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생긴 느낌이야.
항상 생각하게 되고,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Q> 어떤 사람은 창업하게 되면 회사 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할애한다고 말하기도 해. 대표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 편이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그래서 되도록 평일엔 집중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주말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Q> 뒤돌아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올라?

드론 시뮬레이터로 첫 번째 시연 행사를 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올라.
추석 때 정읍 휴게소에서 시뮬레이터를 처음으로 선보였었는데 집중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즐기며 몰입해 있는 꼬마 유저들의 표정이란!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평생 잊기 어려울 거 같아.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목표가 있어?

순천의 다양한 이야기나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연장해 가고 싶어! 드론 시뮬레이터에 담거나 웹툰을 제작하는 걸 생각해 오고 있어.
그리고 우리 일하의 1호 캐릭터가 될 '드론 레인저스'가 순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 순천역 앞 광장엔, 순천에서 태어난 '드론 레인저스'의 동상이 세워지게 될 거야!

Q>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줘.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길을 찾으면서 가고 있거든.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들었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가야 할 길이 확고해졌을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할게. 혹시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찾게 될 거야. 그리고 꼭 응원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를!!